

교회 예배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주로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입니다.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교리적선언 한국 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1. 오늘 주일은 성령강림 후 제16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의 삶도 신앙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주시시오.
3. -예배 안내자: 9월 김정수 집사, 10월 김주는 집사
-기도회 인도자: 9/24 정원철 집사, 10/1 홍기원 청년, 10/8 신미영 성도, 10/15 김정수 집사, 10/22 김태균 집사, 10/29 김주는 집사
-예배 기도자: 9/24 양승희 집사, 10/8 김정수 집사, 10/22 정원철 집사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17주)

제1말씀 : 출애굽기 16:2-15

제2말씀 : 빌립보서 1:21-30

시편교송 : 시편 145:1-8

복음서 : 마태복음 20:1-16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 한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relle de L'Eglise Me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 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 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 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emcp-france.com/

네이버 카페 : 파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연락처 06 5841 2808

e-mail: macarius@hanmail.net

2023년 주제 : “새 힘과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함으로 참 기쁨과 진리를 얻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평화를 가꾸는 생활 공동체

오늘의 묵상

신앙독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네 사람이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 대하는 코끼리인지라 그들은 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손으로 더듬습니다. 하나는 코끼리 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뱀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코끼리 다리 하나를 더듬더니 나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잡고서는 밧줄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몸통을 더듬다가 결국 벽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저마다 눈먼 상태로 코끼리라는 동일한 대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 다 옳지만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또는 “내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물어야 할, 그리고 이미 물었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은 ‘나’라는 존재의 모든 부분이 걸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성품에 대한 질문으로 커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사랑의 주님이기도 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인 우리 존재의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는 우리 정신의 깊은 구석들, 기분과 느낌, 정서와 감정, 또 직관과 통찰과 비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의문, 모든 존재,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는 신뢰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 봉사 담당자

9월 24일 10월 1일

대표기도 : 양승희 집사 공동기도

제1말씀 봉독 : 김수미 성도 이희주 청년

제2말씀 봉독 :

복음서 봉독 : 집례자 집례자

9월 예배 안내 봉사자 : 김정수 집사

9월 다과 준비부서 : 사회봉사부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계십시오.

성령강림 후 제 16 주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85 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 (1분간 기도합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3:11-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 경배와 찬양 Cantique	38 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 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송 Psaume du jour	시편 103:8-13 (구약 837쪽)	다함께

영광송 Spotane	2 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공동기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온 맘과 정성 다해 찬미합니다. 거룩한 주님 날을 맞아 세상 일로 마음과 시간 뺏기지 않고 주 앞에 달려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앞에 모인 것은 주를 예배하기 위함이오니,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오직 주께로만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모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께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를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이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나온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혼자서 신음하는 이가 없도록 주님께서 살피 주시고 이웃을 살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자 우리의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도, 세상도, 사람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공허함이 물질이 없어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어 고통스러움을 깨달아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다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Parole d'aujourd'hui	마가복음(L'Evagile selon Marc) 2장 23절-3장 6절 (신약 55쪽)	신미영 성도
요절 (마가복음 2:27b)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설교 Prédication	사람! 사람! 사람!	박재현 목사
찬송 Cantique	436 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결단의 찬양 Cantique	620 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다함께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교우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축도 Bénédiction	집례자	

